

[1주차]

*2022-2 시험에 나온 선지만 볼드
(기억나는 것만)
주관식은 하이라이트

1. 독일의 도시

- Berlin, 베를린: 동독의 수도, ⇔ 서독의 수도는 Bonn
- Heidelberg, 하이델베르크: 낭만..
- Rothenburg (ob der Tauber), 로텐부르크: 낭만, 중세, 고풍..
- Munchen, **뮌헨**: **바이에른 주**, **대도시**, **BMW**, 옥토버페스티벌
- Frankfurt am Main, 프랑크푸르트: 국제공항
- Hamburg, 함부르크: 북쪽, 유일한 항구
- Nurnberg, 뉘른부르크: 바이에른 주, 크리스마스 시장, 나치 참회
- Dresden, 드레스덴: 오페라하우스..
- Koln, 쾰른: 대성당..

2. 독일 인접국: 덴마크, 네덜란드, 벨기에, 룩셈부르크, 프랑스, 스위스, 오스트리아, 체코, 폴란드

[2주차]

1. 베를린 장벽:

- 세계2차대전 종전-> 독일 분할정치-> 동⇒서 이동 증가-> 베를린 장벽 건설
-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동독의 울브리히트에게 제안
- 무인 지대, aka '죽음의 지대'
- 베를린은 동독 관할이었지만, 베를린을 서(미영프), 동(소련)으로 나눠 관리**
=> 동독 내 서베를린은 완전히 고립됨
- 동독 장교가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는 장면
- 체크포인트 찰리(Checkpoint Charlie); 관문
- 이스트사이드 갤러리: 베를린 장벽의 일부(박물관섬X)이자 야외미술 전시관**
- <형제의 키스>: 소련-동독, 자유와 평화를 소망했던 동독 사람들의 정서
- 베를린 장벽의 잔재: 역사적 추모 공간
- 붕괴: **샤보프스키의 말**로부터 비공식적 효력이 발생함(오보)

2. 독일의 분단

- 알타회담: 독일의 분할 점령 합의
- 포츠담회담: ¹종전 이후 제반 문제 처리, ²하나의 경제권화, ³균등한 생활보장 합의

3. 동독과 서독

	동독	서독
명칭	DDR, 독일민주공화국	BRD, 독일연방공화국
통치국	소련	미국, 영국, 프랑스
양측 모두 통일의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었음		

*DDR: ~ Demokra ~, 동독임에 주의!

*독일 분단/통일을 다룬 영화: <타인의 삶>, <굿바이 레닌>

4. 독일의 정치

1943~1963(장기)	(콘라드 아데나워)	CDU, 기민당	건국, 서방과의 동맹
	빌리 브란트	SPD, 사민당	동방 정책(!!)
	헬무트 콜		독일 통일, 유럽 통합
	앙겔라 메르켈	CDU, 기민당	(유럽 연합 관련)
	올라프 솔츠	SPD, 사민당	

a. 빌리 브란트

- 서독의 초당적, 범국민적 외교정책
- 냉전 속에서 사회주의권 인정
- 통독의 시작 (콜에서 마무리)

b. 헬무트 콜

- 통독의 수장
- 유럽연합의 기초

c. 라이프치히 시위

- 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동독 개혁을 요구
- ② 에리히 호네커가 거절
- ③ 동독의 경제/산업구조 발전 실패
- ④ 라이프치히 주민의 시위: ¹⁾여행규정 완화, ²⁾자유보장, ³⁾이주권리 요구, ⁴⁾부패척결, ⁵⁾동독개혁

d. 동독 ⇒ 서독 이동 증가:

헝가리가 오스트리아(서방)와의 국경 철조망 제거 => 동독주민들의 탈출 ↑, 시위 확산

e. 독일 통일의 날 1990년 10월 3일

- 화폐, 경제, 사회통합 원칙 합의

5. 독일 통일의 역사

a. 1871년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

b. 시민혁명 실패

c.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치 시작 => 프로이센-오스트리아 전쟁

d. 독불전쟁 승리 => 독일제국 성립

- 비스마르크

a. 프로이센의 외교관/정치인

b. 철혈정책=> 독일 통일=> 독일제국 건설

*철혈: 국가의 물리적 힘, 즉 군사력

c. 현대화 기틀 마련

[3주차]

1. 독일의 교육: 다양성 존중, 국가 지원 많음



a. 유치원(Kindergarten): 국립시설, 아동보육지원금; Kindergeld (geld=money)

b. 초등학교(Grundschule): 4학년에 진로 결정

c. 중학교

- 김나지움, Gymnasium: 인문계 고등학교, 김나지움 진학을 점차 증가
- 레알슐레, Realschule: (사무직) 기술/실업 교육
- 하울트슐레, Hauptschule: 직업교육(기술 고등학교X)
- 게잡트슐레, Gesamtschule: 세 가지 형태의 통합(종합학교), 조기 진로 결정의 단점 보완

2. 독일의 대학교육

a. 성적 제도: Note 1, 2, 3, ...

b. 자격 시험: 아비투어, Abitur (수능)

c. 학업 기간: 5-7년; 학부(4년) + 대학원(2년) 통합과정 / 여름학과와 겨울학기, 보통 10월에 시작

d. 교수: 국가 공무원

e. 학생 혜택: 교통비, 의료 보험비 등

f. 직업교육은 대학에서 하지 않음

g. 학위: Diplom; 자연과학, 기술, 경영 ... ⇔ Magister; 인문학

h. 종합대학과 음악대학은 독립적인 관계

3. 빌헬름 폰 훔볼트

a. 훔볼트 대학교 설립

b. 순수학문 교육 위주

c. 연구 중심; 점차 현실적 교육에 치중

d. Bildung, Bildung: 전인교육, 교양교육 ... 괴테 <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, Bildungsroman>

4. 독일 교육의 특징

- a. 교회/국가 담당
- b.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각 주에 위임
- c. 초등교육: 생활태도/습관훈련 집중 => 사회 공동체 의식 기반
- d. 교원양성과정: 엄격함, 교사양성과정 선택, 1/2차의 국가고시, 현장실습 평가 중요
- e. 학문연구와 직업교육 강화
- f. 통합교육의 기회, 교육 기회의 다양화, 개인의 독립성 강조, 평생교육의 장
- g. 우수한 인력의 조기발견,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인력 확보
 ⇔ 조기 진로 결정에 따른 리스크, 대학 진학률 증가=> 실업 문제, 교육제도 변화에 대해 보수적

[4주차]

1. 카프카

- a. 독일어권 문학의 대표 작가: 체코 프라하에서 출생, 프라하 중산층/지식인층(독일어 사용),
유대인 부모, 유대인 사회 출신
- b. 이중생활(법학/글쓰기) => 부자갈등
- c. 막스 브로트(절친!): 카프카의 작품을 출판
- d. **카프카 생전에 살았던 집 관련, 황금골목** (*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음, 틀린 선지로 나옴)

2. 카프카의 작품 성향

- a. 제1차 세계대전 => 표현주의; 피폐해진 내면..
- b. 서양문명 전체의 몰락 거론
- c. 전쟁, 대도시, 데카당스(퇴폐문학), 불안, 자아상실
 => 광기/도취/걱정/꿈을 그로스테크적/과장/표현주의 회화 표현
- d. '평범한 일상과 기괴함'
- e. ¹산업화/대도시화 가속화 비판 *대도시문화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님, ²기계화/비인간화 규탄,
³군국주의 문화 확산 반대,
⁴가부장적 권위주의 질서 저항, ⁵아버지와의 갈등 묘사, ⁶개인 체험의 변형/가공/승화
- f. 이유 없이 고난에 빠짐=> 반기X, 저항X, 시도 조차X, 해결방법X
- g. 독자에게 해석을 맡김(독자가 주인공보다 더 잘 읽), 전지적 작가 시점X, **객관적 시점X**

	현실 + 객관적 해석	비현실 + 주관적 해석
	법, 소송, 인간 실존의 부조리성, 부자 갈등, 관료제도의 전횡, 현대인의 모델, 자본주의 비판	내면의 욕망/공포/불안, 주체의 비합리적 의식, 무의식, 악몽
=> 환상과 일상의 대비/공존		

3. 카프카 문학

- a. <법 앞에서>: 법 앞에 문지기, 못 들어감, 수감
- b. <선고>: 아버지가 갑자기 거인 됨, 아들에게 사형선고
- c. <변신>: 아들이 갑자기 벌레 됨, 가정/직업 틀에서 갑충의 형상으로 기형화 된 개인, 파멸..
- d. <소송>: 아무것도 모르고 처형됨.. 근데 받아들임
- e. <성>: 키워드-토지측량사 K, 성에 들어가는 길 못 찾음, 근데 그냥 좌절함.. *미완성
=> 관료주의적 체제가 말단 조직을 통해 개인에게까지 미치는 가공할 힘

***이름 익히기:** <아메리카(혹은 실종자)>, <소송>, <성>, <선고>, <지방에서의 결혼예식>, <관찰>, <변신>, <유형지에서>, <단식 예술가>, <시골 의사>, <학술원에 보내는 보고서>

=> 회사와 사회, 지배계급, 통제와 감시, 공포, 표현주의, 부자갈등

*영화 <두 세계>: 지배계층 - 피지배계층(일반인), 판옵티콘

[5주차]

1.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주의적/사회적 연방국가이다

- a. 연방국가=> ¹⁾16개 각 주는 독립적인 권한(대학교/문화/자치행정)을 가짐
²⁾각 주의 법 뿐만 아니라 연방법도 집행
³⁾연방상원을 통해 입법과정에 개입
⁴⁾지역별 정체성 대변
=> 오랜 역사를 지닌 분권화된 문화와 경제구조
- b. 가장 넓은 주: 바이에른
- c. 도시이자 주(브베함): 브레멘, 베를린, 함부르크
- d. 경제력이 있는 주: 바덴뷔르템베르크, 바이에른

2. 연방하원

- a. 선거로 선출=> 국민을 대표 ∴
- b. 임기 4년
- c. 초과의원/보정의원 추가

3. 연방상원

- a. 연방주의 대표
- b. 직접선출X, 각 주정부의 대표O; 주지사가 돌아가며 맡음, 임기 1년

4. 독일 통화/국기/국가

- a. 통화: 마르크=> 유로
- b. 국기: (위부터) 검, 빨, 노 순
- c. 국가: 요제프 하이든 작곡

5.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

	의원내각제	대통령제
특징	1)의원/장관 겸직O 2)내각의 법률안 제출O 3)내각불신임권, 의회해산권	1)의원/장관 겸직X 2)대통령의 법률안 제출X => 거부권O
장점	1)적극적인 국정 수행: 입법부/행정부 상호 연관돼 있어 마찰 적음 2)책임정치 실현: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나오기 때문 3)국정 대결의 신속한 해소: 의회해산권/내각불신임권 4)독재 방지: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	
단점	1)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(다수당의 횡포)=> 연정; 소수당의 의견 반영 2)군소정당의 난립=> 5% 저지조항 3)정쟁 격화 우려(입법부가 정권 획득을 위한 장소가 됨)	*다수당 횡포의 우려는 의원내각제의 단점임

6. 국회의사당 Reichstag 돔: ¹⁾전통/현대 조화, ²⁾친환경 설계, ³⁾투명성=> 민주주의 상징, ⁴⁾독일제국 위상 유지

7. 연방대통령

- a. 초당적인 존재=> 상이한 단체들 사이의 갈등 조정 ... 곧 상징적인 존재(외교적 힘 없음)
- b. 임기 5년, 1회에 한해 연임O

8. 앙겔라 메르켈

- a. 독일 최초 여성 총리
- b. 구 동독 출신, 박사 학위
- c. 2008년 유로화 위기 극복, 2016년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(인도주의적 수용)
- d. 겸손, 실리주의
- e. **유럽 연합과 관련**(아마 브렉시트인 듯)

[6주차] - 6주차는 모두 중요!!!! *표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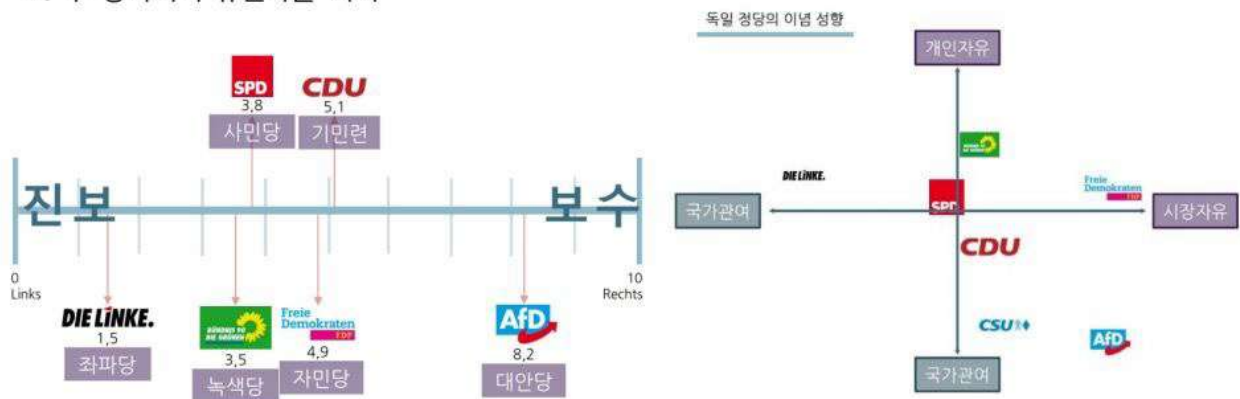
1. SPD, 사회민주당, 사민당 (RED)

- a. Sozial..
- b. 사회주의 노동운동 뿌리=> 사회민주주의 실현 목표
- c. 중도좌파
- d. 대기업 규제, 동유럽과 화해 추구, 대중정당화
- e. 계급을 초월한 광범위한 유권자 지지

2. CDU, 기독교민주당, 기민당, (BLACK)

- a. Christ.. Demokra..
- b. 보수정당
- c. 집권기간이 가장 길
- d. 사유재산제,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
- e. 보수적 농민층, 중상층 시민계급 지지

3. CSU, 기독교사회당, 기사당 (**BLUE**)
 - a. Christ.. Sozial..
 - b. 기민당의 자매정당 => 기민련
 - c. **지지층이 바이에른 주(잘 산다)에만 있음**=> 보수층
4. FDP, 자유민주당, 자민당 (**YELLOW**)
 - a. Freie Demokra.. => 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임
 - b. (CDU+**CSU**) or **SDP**가 과반수 의석을 확보 못 할 경우, 캐스팅 보트
5. 녹색당 (**GREEN**)
 - a. 동독+동맹 90 통합, **68 세대**
 - b. 신사회 운동 뿌리; 환경보호운동, 반평화운동...
 - c. 저소득층 및 좌익청소년 단체, 좌경지식인 지지
6. die Linke, 좌파당 (**PURPLE**)
 - a. 2007년 창당, 통일 후유증으로 지지도 높아짐 => 원내 5 당도 함!
 - b. 급진좌파
7. AfD, 독일대안당 (**SKY BLUE**)
 - a. Alternative...
 - b. 우익
 - c. 2017년 의회에 진출!
 - d. 구 동독지역 유권자들 지지



***좌파당, 녹색당, 사민당, 자민당, 기민련(기민당+기사당) 중에서 기사당은 가장 보수적임**

1. 독일의 선거

- a. 혼합형 비례대표제: 인물선거 + 비례대표제 => **1인 2표제**
- b. 18세 이상의 독일인

2. 연방하원 선거: 정치의 향방을 결정 (연방상원은 아님, 구분하기)

- a. 제1투표: 인물 투표=> 최다득표
- b. 제2투표: 정당 투표=> 정당별 의석 배정

3. 의석배분

- a. 초과의석: 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 > 제2투표 득표율
=> 그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가짐
- b. 보정의석: 초과의석 발생=> 정당 득표율/의석배분 간 전체비율 유지, 불비례가 해소될 때까지

4. 연방총리 선거

- a. 다수당의 당수를 총리로 임명
- b. 연정을 통해 과반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

5. 독일 선거제도의 장단점

장점	단점
1)비례대표제 이념이 강함 2)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비례성이 높음 3)사표 발생률이 낮음=> 민심 반영에 효과적 4)소수자 그룹의 대표성을 보장, 정당정치 활성화	1)군소정당 난립 가능성 2)소수정당의 월권적인 정국 운영 가능성 => 5% 저지조항: 정당이 제2투표에서 전국 득표율 5%을 넘어야 연방하원 진출 가능 3)개별 유권자와 의원 간 연계가 약함 4)선거비용의 부담 5)의원정수의 유동성=> 확실성 모호

6. 최근 선거 동향, 2021년 총선:

- a. 앙겔라 메르켈의 16년 장기 집권 종결, 리더십 변화
- b. 제1당: 사회민주당, SPD
제2당: 기독교민주당, CDU (우니온)
제3당: **녹색당 *선전함!**
제4당: 자민당 *선전함!
제5당: 독일을위한대안당 *선전 못함, 2017년 총선에서는 잘 함
제6당: 좌파당 *선전 못함
- c. 2017년 총선과의 비교: - 양대 정당(기민련/사민당)의 약화; 전세계적 기성 정치 혐오 현상
- 이념적 스펙트럼의 양극화 (AfD가 선전하는 등)
- **유럽 전역에서 우파 정당이 약진함**
- d. **신호등 연정: 빨(SPD, 사민당) 노(자민당) 초(녹색당);** 진보로의 전환
=> 유럽의 주관, 프랑스 우호, 미국 파트너십 강화, 중국/러시아 강경 노선

[7주차]

1. 독일의 공휴일: 대부분 종교 휴일, **기독교+게르만 토속 결합**
2. 축제
 - a. **카니발**: 부활절 고난주간 시작 전, 서쪽 지역 라인강 주변 지역
 - b. **사순절**: 부활절 축제를 준비하는 **동시에 참회** (금식, 적선, 기도)
 - c. 부활절
 - d. 옥토버페스트: 뮌헨, 9월 말~10월 초, 2주 간
 - e. **크리스마스 마켓**: 도시광장에서(대도시X) 11월 말부터 한 달 간

[독일어 단어 나오는 파트]

1. BASF: 화학회사
2. Goethe-Institut: 문화기관이 아닌 어학기관
3. DB(Deutsche Bahn): 독일 철도공사